

-는 수밖에 없다

~하는 수밖에 없다 — 다른 방법이 없다

체념을 솔직하게 나타냅니다. 수(방법)와 밖에(그 밖에는 없음)로 이루어져, 글자 그대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는 수밖에 없다	기다리다 →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
르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
과거	시제는 없다에	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
부정 동작	-지 않는 수밖에 없다	가지 않는 수밖에 없었다
형용사	불가능	바쁜 수밖에 없다 (×)
의무를 나타낼 때	-아야 하다	기다려야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-는을 동사 어간에 붙인 뒤 수밖에 없다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여 만들다는 만드는 수밖에 없다.가 됩니다. 형용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.

어조는 마지못한 수용입니다. 그 행동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: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

과거는 없다에 붙입니다: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. -는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.

다음 표현인 -아야 하다는 차이는 압박이 어디서 오느냐입니다. -아야 하다는 의무를 나타내고, 수밖에 없다는 다른 선택지가 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
- 2 버스가 끊겨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.
- 3 부품이 없으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.
- 4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.
- 5 비가 그치지 않으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
- 6 결국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

■ 비교

-아야 하다
-아야 하다는 의무를 나타내고, 수밖에 없다는 선택지가 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뒤의 것에는 앞의 것에 없는 체념이 담깁니다.
기다려야 해요. (기다려야 한다) /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(달리 방법이 없다)

-느니
-느니는 나쁜 두 선택지 중에서 고르고, 수밖에 없다는 하나만 남았다고 전합니다.
기다리느니 걷겠어요. (차라리 걷겠다) / 걷는 수밖에 없어요. (걷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)

-(으)ㄹ 따름이다
같은 체념이지만 문체가 다릅니다. 따름이라는 격식 있고 절제된 표현이고, 수밖에 없다는 일상적이고 직설적입니다.
기다릴 따름입니다. (격식) /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(구어)

■ 주의

- × 부품이 없으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.
- 부품이 없으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.
- 르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와 같이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× 요즘은 바쁜 수밖에 없어요.
- 요즘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.
- 형용사에는 -(으)ㄹ 수밖에 없다를 쓰며 ‘당연히 ~할 수밖에 없다’라는 뜻입니다. -는 형태는 동사에만 씁니다.
- × 버스가 끊겨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. — 어젯밤 일에 대해 (×)
- 버스가 끊겨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.
- 시제는 없다에 붙입니다. 앞의 -는은 바뀌지 않습니다.